# 금속노조통신

2026-35호

**발행일** 2026년 11월 10일(화) | **발행인** 박상만 | **SNS**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금속노조 | **편집** 선전홍보실 ☎ (02)2670-9507


# 금속노조 복수노조사업장 임원현장순회 돌입

## 금속노조, 복수노조 현장 목소리 듣고 조직적 대응 모색…
## 오는 27일까지 전국 현장순회





금속노조가 11월 9일 '복수노조 사업장 임원현장순회'에 돌입했다.

금속노조는 첫 행선지로 대전충북지부를 찾아 한국타이어지회·한국타이어사내하청지회, 콘티넨탈지회를 직접 돌며 조합원들을 만나 현장의 의견을 듣고,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대양판지지회, 콘티넨탈지회, 현대성우메탈지회, H그린파워지회, APITV 충주지회, 디어포스지회, 한국타이어지회, 유성기업영동지회가 참석했다.

황영선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노조는 전국에 있는 복수노조 사업장을 만나 현장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2027년도 사업 계획에 반영하고자 한다"며, "복수노조위원회를 설치하면 현재 금속노조의 4개 분과(자동차, 조선, 철강, 전기전자) 정도의 운영 흐름을 가져갈 예정이다"라고 언급했다.

정상만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복수노조는 생존의 문제이자 사활을 거는 문제"라며, "내 사업장이 없어질 수도 있고 자본에서 일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환경도 언제 부지불식간에 다가올지도 모른다"고 복수노조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조했다.

노조는 11월 10일 구미·대구지부, 11일 대구·대전충북지부, 12일 광주전남지부, 18일 경남·울산지부, 19일 울산·경주지부, 20일 강릉(미편제), 25일 서울·경기지부, 27일 전북·기아차지부 현장순회 일정을 이어간다.

